

第49回  
(定期會)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1月25日(土) 午前10時 開式

第49回(定期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沒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鄭恩秀)

(10時05分 開式)

○議事係長 鄭恩秀 지금부터 제49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국에 따라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격 지방자치시대인 제2대 의회의 첫번째 정기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국내·외적으

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밖으로는 유엔 비상임 이사국 진출과, 에이펙(APEC)에서의 우리의 주도적 역할은, 이 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을 드높이는 외교의 승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안으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최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등은 우리를 경악과 허탈감마저 갖게 하였습니다.

건국이래 고도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구해온 사회 경제적 국가정책은 우리에게 안전불감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았으며, 관행처럼 이어져온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는 마침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정 초유의 불행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구현이야말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50만 성북구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주민의 여망과 기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살피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책임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95년도 정기회는 제2대 의회의 첫 정기회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정노력을 더해서, 초대의회보다 한층 성숙된 의회상을 구민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에서의 구정질문, 또한 '96년도 예산안 승인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개최에 즈음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수행과정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물론 구정의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서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적 방향 설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닌, 내실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50만 구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성북발전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96년도 예산안 심의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성북의 내년도 살림의 재원입니다.

또한 예산이란, 우리구의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며,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수단으로, 지역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특별히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금년도 의회활동의 중핵이자, 2대 의회의 첫 정기회인만큼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행정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계기가 되어 성북구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함께 창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鄭恩秀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時15分 閉式)